

□ 2015년 축종별 배합사료산업 전망

배합사료산업 전망 총평



김관태
한국농어민신문 축산팀 차장

2014년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데다,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와 PED(돼지유행성설사병) 등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불안한 상황을 이어간 한 해였다.

더욱이 올 7월 FMD(구제역)가 재발하면서 백신 청정국 지위를 잃게 됐고, 어렵게 시동을 건 축산물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사료분야에서는 일부 축종을 중심으로 사육두수가 감소하면서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국제 곡물가격과 환율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띠면서 사료업체들의 경영 여건은 다소 나아졌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기상이변, 환율 급등과 같은 외부 변수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 영연방 FTA 추진 등 시장개방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어 국내 축산업의 기반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 2014년 배합사료 업계는 어땠나

그동안 국내 배합사료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지난 한 해 배합사료 생산실적은 총 1893만 6000톤을 기록, 1900만톤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에는 2014년 배합사료 생산량이 사상 처음으로 1900만톤을 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올해 9월까지 생산된 배합사료 누적생산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9.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축종별로는 양계사료가 전년 동기 대비 8.9% 늘어난 반면, 양돈과 축우사료는 각각 2.7%, 4.2% 감소했다. 낙농사료는 0.4%이지만 소폭 늘었다.

이 같은 요인은 사육두수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3분기 기준, 한·육우 마릿수는 282만 마리로 전년 동기 마릿수인 304만 3000마리 보다 7.3% 감소했다. 돼지도 마찬가지로 올 3분기 사육 마릿수는 996만 6000마리로, 전년 동기 1018만 8000마리



<표 1>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실적

(단위 : 천톤)

구분	합계	양계	양돈	축우		기타
				낙농용	비육용	
2010	17,710	4,658	5,535	1,292	4,761	1,464
2011	16,815	4,748	4,482	1,240	4,792	1,553
2012	18,640	4,823	5,685	1,337	5,143	1,652
2013	18,936	4,790	6,136	1,332	5,213	1,46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표 2> 2013·2014년 축종별 생산실적 비교

(단위 : 천톤)

구분	합계	양계	양돈	낙농	비육	기타
2013년 1~9월(A)	13,965	3,547	4,477	992	3,860	1,089
2014년 1~9월(B)	13,852	3,864	4,355	995	3,700	937
누계대비 B/A(%)	99.2	108.9	97.3	100.3	95.8	86.0

※ 자료 : 한국사료협회 9월 배합사료 생산실적

보다 2.2% 줄었다. 반면 배합사료 생산량이 늘어난 닭은 3분기 사육 마릿수가 1억 5163만 5000수로, 전년 동기 1억 3672만 1000수 보다 10.9% 늘어난 상태다.

배합사료 생산량은 줄었지만 환율 안정에 따른 사료업체들의 경영 여건은 다소 나아진 한 해였다. 최근 들어 환율이 다시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한 때 원-달러 환율은 1000원대에 근접하기도 했다. 다만 올 상반기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사태와 기상이변 우려 등으로 국내 배합사료 생산업체들은 국제곡물가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축산농가들은 국제곡물가 및 환율 안정을 이유로 배합사료 가격 인하요구를 이어갔으며, 일부 생산자 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사료가격 조사를 통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공개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었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

환경축산 종합대책 중 하나로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를 도입, 제품별 성분 및 가격 비교표를 공개해 합리적인 배합사료 가격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 2015년 배합사료 시장은

국내 배합사료 시장은 완전 경쟁체제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업체 간 인수합병은 물론 고객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쟁도 치열하다. 더욱이 축산농가 수가 점차 줄어드는 대신 농가당 사육규모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사료업체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성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사료 품질에 대한 눈높이도 더욱 커

질 전망. 이를 반영하듯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시판 중인 배합사료와 TMR사료에 대한 성분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각 사료업체들의 품질 경쟁도 갈수록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군과 계열업체 중심의 배합사료 시장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길애그리퓨리나가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일원에 짓고 있는 펄텍·당진공장의 경우 내년 3월경이면 준공될 예정이다. 연 생산 87만톤 규모다. 하림 계열인 선진도 군산에 신공장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최신식 설비를 갖춘 이들 공장이 본격적인 생산에 가담할 경우 차별화된 품질의 사료 생산·공급이 더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시장 공략과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내 축산업 여건이다. 기 체결된 FTA와 함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과의 FTA가 현실화 되면서 축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호주, 캐나다와의 FTA를 통해 향후 15년간 발생할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 추정액은 총 2조1329억원으로, 연간 평균 1422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축산분야가 82%인 1조7573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FTA 체결로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면 수입 축산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크다. 미국산 냉동삼겹살의 경우 내년이 되면

관세가 2.1%에 불과하며, 2016년부터는 관세가 아예 없어진다. 수입육의 증가는 국내 배합사료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축질병도 위협이 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발생한 AI의 경우 과거와 달리 여름철에도 발병이 계속돼 상재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PED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발생이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각에선 대유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가축질병 문제가 불거질 경우 축산물 생산은 물론 소비감소로 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사료업계를 포함한 축산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여지가 높다.

■ 사육두수의 변화

지난해 돼지가격이 폭락하자 한돈농가들은 모돈 감축을 추진했고,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3분기 돼지 사육 마릿수는 총 1018만 마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모돈 감축 효과가 나타나 올해 3분기에는 996만6000마리까지 사육 마릿수가 줄었다. PED 발생과 함께 양돈사료 생산량 감소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89만5000두까지 떨어졌던 모돈 마릿수가 올 1분기에는 91만두, 2분기와 3분기에는 92만 5000두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후보돈 판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내년도에는 공급과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후보돈의 교체 시기가 몰렸다는 분석도 있지만 올해 돼지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사육 마릿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이에 최근 열린 양돈수급조절협의회에서는 돼지가격을 구간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라 수급조절 장치를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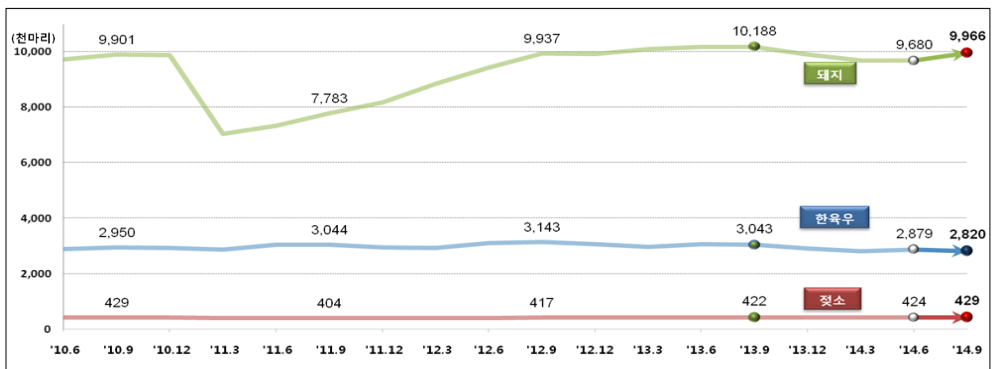
수급조절 여부와 PED 확산 등 외적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로선 내년 하반기 돼지 사육 마릿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경우 내년 3월 돼지 사육 마릿수를 970만~990만두로 전망했다.

한우의 경우 올해 말까지는 송아지 생산 잠재력이 전년 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나, 2015년 상반기에는 송아지 생산 마릿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다만 정액 판매량 등을 고려했을 때 2017년까지는 사육 마릿수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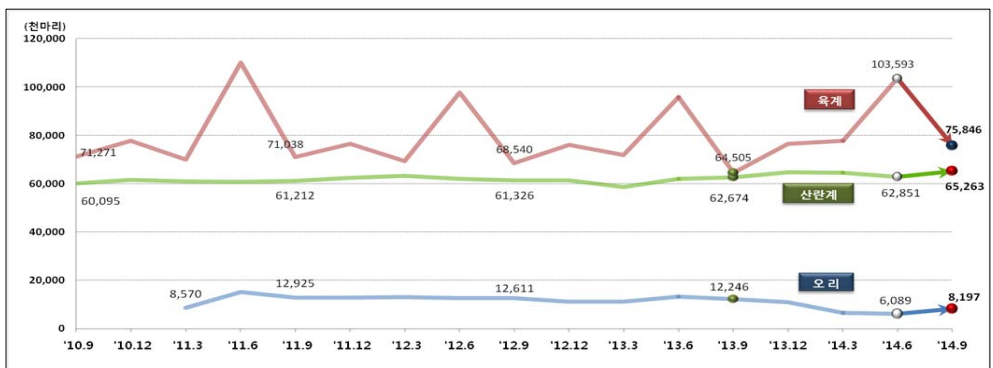
올해의 경우 가임암소 마릿수도 줄었는데 올해 3분기 가축동향조사에서 나타난 한

<그래프 1> 한·육우, 젖소, 돼지 사육마릿수 동향



※ 자료 : 통계청 '2014년 3/4분기 가축동향' 조사

<그래프 2> 닭(산란계·육계) 및 오리 사육마릿수 동향



※ 자료 : 통계청 '2014년 3/4분기 가축동향' 조사

· 육우 가임암소 마릿수는 116만 5000마리로, 전년 동기 123만 4000마리에서 5.6% 감소한 상태다.

계열업체 간 점유율 경쟁 등으로 생산량이 늘었던 육계 분야는 종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올해 말까지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량 증가로 인해 업체들이 닭고기 구매·비축에 들어간 상태로 단기적 수급조절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종계도태가 필요한 상황. 여기에 국내 닭고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있어 실질적 종계도태가 이뤄진다면 사육 마릿수는 올해 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곡물가 및 환율 변동

FAO(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올해 9월 곡물 가격지수(2002~2004년 평균=100)는 8월보다 2.5% 하락한 177.9포인트를 기록,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014/2015 세계 곡물 생산량도 옥수수 등 잡곡 수확량 증가로 당초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된 상태.

또한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곡물가격은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제곡물 관측을 보면 올해 8월 옥수수 선물가격(CBOT)은 톤당 141달러로 전월 대비 6.2% 하락했으며, 옥수수 수출가격(FOB)도 전월

보다 3.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율의 경우 올해 7월 2일 원-달러 환율이 1007.50원까지 하락하면서, 1000원선이 붕괴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대부분의 배합사료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배합사료업체로서는 환차익이라는 호재가 작용했지만, 7월 이후 달러 강세가 이어져 최근엔 1060원선을 기록하고 있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르는 것은 했지만, 당초 국내 사료업체들이 예상했던 선에서 환율이 움직이는 모습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선 미국의 경기회복세로 달러 강세가 본격화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원화는 다른 국가의 통화와 달리 상대적으로 소폭 절상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사료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가 관심이다.

LG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급격한 자본 이탈의 가능성이 낮고, 이에 따라 달러 강세 국면에서도 대부분의 통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겠지만 원화는 소폭 절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한 견해는 아직 엇갈린다.

농업 생산액 상위 5개 품목 순위는 쌀, 돼지, 한우, 닭, 우유다. 쌀을 제외하면 모두가 축산물로, 축산업이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임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비록 국내 축산업을 둘러싼 여건은 녹록치 않지만 2015년에는 축산농가와 사료업체 모두 더 많은 경쟁력을 갖추어나갈 기 대해본다. ☞